

# 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반대”

### 연간 세수 46억 줄고 기업 유치 악영향·역차별 논란 우려 “하향 평준화 정책 안된다”...여수·순천 등과 공동대응키로

광양시가 시·군세(市·郡稅)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인 도세(道稅)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해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423억원으로 시세 1340억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안대로 배분기준이 변경될 경우 지방교부세 증가

분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46억원 안팎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면 각 지자체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군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광양시의 입장이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시·군세 조정과정을 대상으로, 지난 23일에는 전국 부단체장회의를, 25일에는 시·군 예산담당관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했으며, 차후 시행시기와 배분기준을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같은 처지에 놓인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등 6개 시와 여수시, 나주시, 영광군 등 법인지방소득세 비

중이 큰 도내 자치단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내로 광양·여수·순천시 행정협의회 명의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의원 및 국회의원과 의회 간담회를 통해 관련 입법 저지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는 또 정부에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감소한 세수를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격차를 줄여 시·군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조정교부금을 부족한 자치단체에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광양시의 주장이다.

광양시는 특히 국세의 지방 이양 또는 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력을 확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희생에서 나

온 재원을 거둬 다른 자치단체로 나누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천의 광양시 세정과정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 실현에 역행된다”면서 “특히 각종 공장 유치로 소음·분진 등 공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광양지역 같은 지역별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 자치단체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광장은 또 “광양시는 그동안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환경오염 처리 등에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광양시민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해 피해를 참고 있는 현실속에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부정적인 여론과 역차별 논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제철, 복지시설 5곳에 차량 기증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 내 사회 복지시설 5곳에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차량을 기증했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지난 30일 광양시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 차량(5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양제철소 김순기 행정부소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허정 회장, 수혜자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문승표 이사장,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경화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나눔사

업을 실시 중이다. 포스코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POSCO Global Volunteer Week)는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나눔과 봉사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전 세계 포스코 패밀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포스코만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전달 차종은 포스코 월드프리미엄 고급도장판이 70% 이상 들어간 ‘티볼리 에어’ 5대로 총 차량가액만 1억 2500만원에 이른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기금을 활용해 모두 26대의 차량(장애인 리프트 차량 12대, 스타렉스 13대, 버스 1대)을 광양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기증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블로그기자단 광양의 매력에 빠지다

### 망덕포구·매화마을 등 방문 SNS 홍보영상 제작 미션도

광양시는 “최근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블로그기자단’ 15명을 초청, 시티투어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블로그 기자단은 광양제철소와 망덕포구, 매화마을, 느랑이골 자연휴양림, 구봉산 전망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시티투어를 마친 기자단은 광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과 영상 등에 담아 개인 SNS를 통해 홍보했다.

또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티투어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도 열렸다. 특히 이번 투어에는 ‘한눈

에 보는 광양 시티투어’를 주제로 SNS 홍보영상 제작 미션도 진행했다.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광양시 SNS 캐릭터인 ‘매돌이’와 블로그기자단의 재미있는 포즈를 영상으로 담았으며, 블로그기자단이 함께한 광양 시티투어 홍보영상은 조만간 광양시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블로그기자단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여행후기를 통해 광양의 먹거리와 볼거리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티투어 홍보영상 촬영 미션에 적극 참가해 준 블로그기자단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광양시 블로그기자단이 광양 SNS캐릭터인 ‘매돌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재미있는 포즈를 영상에 담아내는 촬영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도시공원 조성 본격화...시민 거주환경 업그레이드

### 시, 도시계획 변경 고시...마동 근린공원 등 보상·행정절차

광양시가 그동안 조성을 미뤄왔던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예산부족 등 각종 이유로 조성을 하지 못했던 공원 조성을 위해 최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아직 미조성된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정현복 시장 취임 이후 시민들의 거주환경 업그레이드를 목표

로 근린공원 조성고 도심 속 소공원 조성, 도로변 나무, 꽃 식재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 17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성황근린공원에 이어 서산근린·마동근린·마동체육공원 등 공원 3개소 조성을 목표로 보상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양시는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결정·고시했다.

광양시는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부속 6400㎡ 부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조성하는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관을 저해하는 공동묘지 513기를 이장하고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망암터 등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마동 축구장 인근과 새롭게 조성되는 구역(미가로 골프연습장~현충탑 부근)까지 순환되는 공원 산책로를 개설하고, 보행용교 2개소(마동 축구장 남측, 카이스트 빌 북측)를 설치해 교통 안전

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둘레길 3.9km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마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마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테니스 코트 6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다목적 구장 2면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테니스 코트 6면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이번 달 중으로 사전제해 영향성 검토와 실시계획 인가 등 개발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우리들의 찬란한 꿈’

### 4·5일 광양청소년연극제

제16회 광양청소년연극제가 4~5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광양청소년연극제는 청소년의 희곡 문학과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의성과 문화적 소양을 길러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고등학교 연극경연 축제이다.

(사)한국연극협회 광양시지부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극제에는 광양지역 고등학교 6개 연극팀이 참가한다.

연극제 첫날인 4일에는 광양고등학교 연극부 ‘G&T’의 ‘중이비행기’ 공연을 시작으로 광양여자고등학교 ‘아랑’의 ‘도랑’, 광양제철고등학교 ‘플레이어즈’의 ‘방황하는 별들’이 공연된다.

5일에는 광양중학교 ‘민들레’의 ‘왕따릴레이’, 광양백운고등학교 ‘천리향’의 ‘사람향기’, 광양고등학교 ‘एको’의 ‘추름진 아이’ 등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 지역아동센터 500여명

### 내일 한마음큰잔치

광양시는 “오는 4일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종합체육관)에서 ‘2016년 초록빛깔 한마음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운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고 18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예정이며, 칠성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모듬북 공연과 단체 게임 레크레이션, 마술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또 참여 아동을 4개팀으로 나눠 큰공굴리기, 줄다리기, 선선님과 한마음, 깃발 서바이벌, 바람성 탈환 등 다양한 놀이도 함께할 계획이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새를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광주·전남  
기능장1호

#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